

# 팍팍한 생활... 월급 늘었지만 쓸 휴가가 없네

## 통계청 '2017 한국의 사회지표'

### 평균 휴가 5.9일로 오히려 줄어

### 월 임금 335만원...빚 300만원 ↑

“연가는 1주일도 안되고 전년보다 월평균 임금은 8만 원 늘어났는데 가구당 부채는 300만원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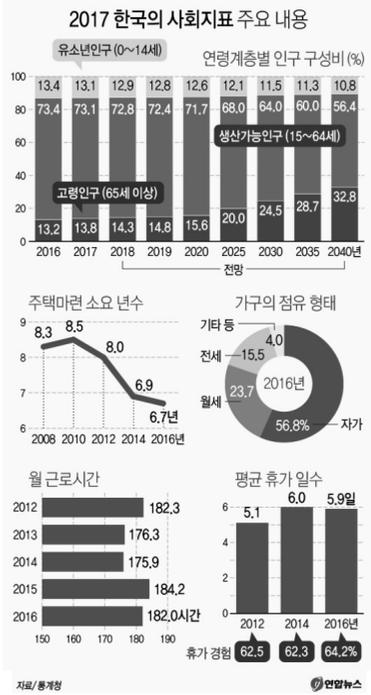
통계청의 '2017 한국의 사회지표'는 이같은 국내 사회상과 전반적인 경제·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 수치가 담겨 있다.

◇휴가는 평균 5.9일=사회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휴가 경험이 있는 국민의 평균 휴가일수는 5.9일이었다. 2014년 조사 때(6.0일)보다 0.1일 줄었다.

휴가를 사용한 이들만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이라서 휴가가 없었던 이들에게 포함해 평균값을 구하면 훨씬 짧아진다.

연령대별 평균 휴가 일수는 15~19세가 7.0일로 가장 길었고 20대(6.6일), 30대(6.0일), 40~50대(5.7일), 60대(5.5일), 70세 이상은 4.9일로 가장 짧았다. 2016년 기준 한국인이 문화·여가에 지출하는 돈의 비중은 소득의 5.9%로 2011년 5.4%를 기록한 후 매년 상승했다.

◇월평균 임금은 늘고 근로시간은 줄고=지난 2016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82시간으로 전년보다 2시간 12분 줄었다. 월평균 임금은 335만원으로 8만원 늘었다. 같은 해 기준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4690원이었다. 고졸 학력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1589원, 중졸 이하 학력의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고졸 학력 근로자의 85.3%, 전문대졸은 고졸의 115.8%, 대졸과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각각 고졸의 158.0%, 246.0% 수준이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전년(6719만원)보다 4.5% 증가했다. ◇5060세대는 삶의 만족도 낮아=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감에 대한 인식은 전년보다 0.1점 상승했다. 반면 걱정(근신), 우울감에 대한 인식은 전년보다 각각 0.2점, 0.1점 감소했다.

다만 나이별 인식은 차이가 있었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은 50대와 60대에서 낮았고 걱정(근신)과 우울감은 10~20대와 40대에서 높았다.

기부 경험과 자원봉사 참여 경험도 낮아지는 등 각박해지고 있는 사회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기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6.7%로, 2011년(36.4%), 2013년(34.6%), 2015년(29.9%) 등으로 감소했다. 또 작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7.8%로, 평균 참여 횟수는 8.3회, 평균 시간은 25.6시간이었다. 참여 경험자는 감소했지만, 평균 참여 횟수나 시간은 증가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13세 이상 한국 국민 중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3.2%,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5.5%였다. 2년 전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은 증가했고 불안하다는 인식은 감소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일보 김여송 사장 신문협회 부회장 세번째 연임

### 이병규 현 회장 재선임

김여송(사진) 광주일보 발행인이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지난 2014년 부회장에 선임된 이후 세 번째 연임이다.

한국신문협회는 22일 제56차 정기총회와 제342차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이사 20명, 감사 2명 등 총 22명의 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0년 정기총회까지다.

또, 이날 한국신문협회는 제46대 회장도 이병규 현 회장(문화일보 발행인)을 재선임했다.

부회장은 김여송 광주일보 발행인을 비롯, 임재정 동아일보 발행인,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김교준 중앙일보 발행인, 김기용 한국경제 발행인, 부산일보 안병길 발행인을 선임했다.



김여송 발행인은 한국의국어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광주일보에서 정치 부장·편집국장 등을 지냈으며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에 걸쳐 14년 동안 청와대를 출입, 전국 일간지 가운데 최장기 출입기자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호남지역 언론인으로는 유일하게 남북 취재했으며, 상징회사인 (주)광림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호남지역 언론인으로는 김남중, 김종태 전 광주일보 회장에 이어 2014년 3번째로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에 선임된 후 6번째 연임하게 됐다. /박기용기자 pboxer@

## 광주시 감사위 비상식적 행보...공직사회 '슬렁'

### 기존 인사와 신입간 마찰론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에 시청 내부 공직사회와 지역사회가 슬렁이고 있다. 시의 투자 유치 관련 자료가 청와대로 건너갔다는 것을 '문서 유출'이라며 수사 의뢰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회의적인 여론이 있는데다 자동차밸리위원회의 기부금 사용 내역을 살펴봐줬다는 감사 착수 목적과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의회와 시민단체가 자동차밸리위원회 기부금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자 감사에 착수한 시 감사위원회가 "투자를 약속한 의뢰기업 매드라인 관련 문서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됐다"며 21일 수사 의뢰 방침을 공식화했다. 당초의 감사 범위와 목표가 달라진 것이다. 자동차밸리위원회 기부금 감사 과정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자 전략산업본부의 업무 전반으로 확대한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운영될 시 감사위원장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 감사위원회는 자동차밸리위원회가 아니라 광주테크노파크, 그린카진흥원 등의 회계, 계약, 인사 등의 서류까지 살살이 뒤지고 있다.

시청 내부에서는 박병규 경제부시장과 직제상 아래에 있는 전략산업본부 간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마찰이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자객 논란이 일었던 박 부시장이 올 초 취임한 후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났기 때문이다. 박 부시장은 지난 21일 11월 전기차 유치를 위해 구성된 '자동차특임단'에 포함돼 있다가 부시장에 임명되면서 일약 특임단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에 올랐다. 이후 자동차밸리위원회의 기부금 논란이 일고, 시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하면서 최근 특임단장이던 신모씨가 해촉되기도 했다.

박 부시장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자칭해 "자동차산업밸리위에 대한 감사와 관련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해당 업무를 함께 추진했다. 박 부시장과 신 전 단장은 모두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의 캠프에서 활약했다.

박 부시장과 윤 위원장은 공교롭게도 지난 1월 같은 시기 모두 논란 끝에 공모를 거쳐 임명됐다. 박 부시장은 5급 일차 직책특보에서 1급 경제부시장 자리로 전격 발탁됐으며, 윤 위원장은 시 공무원노조가 성문옥 전 위원장의 연임 반대를 주장하면서 신규 채용됐다.

박 부시장은 5급 일차 직책특보에서 1급 경제부시장 자리로 전격 발탁됐으며, 윤 위원장은 시 공무원노조가 성문옥 전 위원장의 연임 반대를 주장하면서 신규 채용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문재인 대통령, 5박 7일 베트남·UAE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5박 7일간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출국해 오후 베트남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 훈련장을 방문해 '베트남의 히딩크'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을 격려하고 훈련을 참관했다. 박 감독은 지난 1월 23세 이하(U-23)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십에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하며 선수들과 함께 베트남의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학기술원(KIST)을 모

델로 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착공식에 참석했다. VKIST는 2020년 완공 예정이며, 한국과 베트남이 각각 3500만 달러씩 총 7000만 달러를 부담한다. 또 베트남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베트남 방문 이틀째인 23일에는 쯤다이 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응우옌 푸 쑹 공산당 서기장, 응우옌 쉰언 폭총리, 응우옌 티 킴 응언 국회의장 등 주요 지도자들과의 면담이 이어진다.

베트남 방문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숙소 인근 서민식당에서 하노이 시민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한 뒤 UAE로 이동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의 축구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베트남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베트남 축구협회를 방문해 시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남북고위급회담 29일 판문점 개최 제의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22일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에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3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고, 이번 회담에서 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 등을 논의하고자 제의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전날 조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1명씩 모두 3명의 대표단을 고위급회담에 보낼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상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 판권·전원주택지

- 구례군 토지면 문수골 3683㎡ 투자성 품목 1억3천
- 곡성군 삼기면 대지와 전 681㎡ 광주시 30분 내 6천만원
- 완도 약산면 특임리 바다접 2481㎡ 민박집적합 분할가 2억4천

▶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송광아파트원 토지 166㎡ 건평 180㎡ 3세대생활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로접 2층 주택 전체공실 토지 150㎡ 1억5700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1층전세 4천안고 1억4500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 투자·매도·교환

- 신안동 전대문로쪽 토지 160㎡ 주택 70㎡ 찜질등적합 1억7300
- 장성 모텔 땅 364㎡ 건평 164평 감정 5억6천 은행 3억 매도 4천
- 고흥 나로도부근 판권 땅 9891㎡ 건평 267㎡ 객실 10개 7억6천
- 양동시장건너 재개발지역 대로변 대지 217㎡ 주택 3억2천
- 영암읍 역리 대로접 준공업지 1702㎡ 급매 2억2천
- 장성 북이면 수성리 전 2136㎡ 전원생활적합 4500만원
- 금남로5가 대로변 북동상업지 2010㎡ 병일 오피스텔등 적합 52억
- 무안군 운남면 내리 전원주택 등 적합 5000㎡ 1억9천
-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전 1663㎡ 도로접 1억3천
- 화순 동면 장동리 땅 213평 건평 60 은행 1억5천 매도·교환 2억5천
- 제주도 사귀포시 발장 땅110여평 건물3층 65평형 엘리베이터 10억2천
- 월산동 무진중부근 원룸적합 379㎡ 소방도 접 4억천
- 충정로 5가 도로접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 상가건물

- 순천면 판선 대대동 땅 332㎡ 건평 285㎡ 방 8년매출 1억천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충정로5가 버스도로 대지 265㎡ 건평 1001㎡ 10억5천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중용 12억
- 월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현천, 농성초교옆문앞

### 태성공인중개사

▶ 상가 / 상가주택

- 수원동 7층 건물(보증금 6억 월3,200만) 매 75억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
- 산성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림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 500㎡ 매 24억
- 나주시 성북동 1층상가 대 489㎡ 건 322㎡ 매 7억2천
- 양산동 원룸 대 300㎡ 매 7억8천(보1억, 월4백만, 안집)
- 오선동(진곡산단) 대 785㎡ 건 600㎡ 매 21억(보2억, 월900만)
- 담양군 수북리 전원주택 대 506㎡ 건 96㎡ 매 3억5천

▶ 토 지

- 임암동 호천리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서구 매월동 대로변 자연녹지 3,600㎡ 매 38억(전시장 물류 사육 적함)
- 서구 금호동 자연녹지 1,250㎡ 매 20억(카센터, 물류 적함)
- 서구 서창동 대지, 전 1,760㎡ 매 13억5천
-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 3,800㎡ 매 2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함)
- 광산구 비아동 자연녹지 6,130㎡ 매 3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함)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코너지 대지 612㎡ 매 12억
- 광산구 운남동 대로변 자연녹지 2,100㎡ 매 32억(전시장 사육적함)
- 광산구 비아동 자연녹지 대 489㎡ 매 8억4천(전원주택부지 적함)
- 도곡면 원화리 계획관리지역 나대지 5,355㎡ 매 33억(요양병원적함)
- 진원면 선적리 재개발부지 대지 830㎡ 매2억6천
- 담양군 대전면 선리 1층주거지 전 1,637㎡ 4억6천(창고적함)
- 정읍시 신성동 전 3,300㎡ 매 4억5천(전원주택, 가든식당 적함)
- 고흥군 송림리 전 17,000㎡(약 5천평) 매 3.3㎡당 2심2만원 (토목공사완료, 바닷가토지, 남동향, 펜스, 카라반, 전원주택, 태양광적함)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 전국·임야

바로 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 덕남동 -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20만원
- 일불대폭 조정가
- 문의. 010-3605-5000